전통 한방향의 본가
www.cwh.co.kr
☎ 054) 933-6371~2

佛教新聞

대승투어 daeseungtour
신심깊은 불자들의 여행사
여법한 순례
품격있는 여행
☎ 1577-0206 www.대승투어.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7년 2월 20일 (2013년 / 단기 4346년 음력 1월11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889호 수

사찰에서 차례 지내는 가구 늘었다

본지, 표본조사결과 6~10% 증가

조계사 설날당일 3회걸쳐 합동차례
불광사 일요법회보다 약300명 많아
내원정사 영구위패 10% 정도 증가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재적사찰에서 차례를 지내는 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 14일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불광사, 정안사, 부산 내원정사, 광주 부각사 등 주요 사찰과 포교당 등을 표본조사해 본 결과, 최근 몇 년간 사찰에서 차례를 올리는 세대가 6~10%정도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스님)는 이번 설날 합동차례에서 160세대, 단독차례에 13세대가 증가했다. 지난해 설날 합동차례에 2,139세대가 동참한것에 비하면 7.5%증가한 셈이다. 설날인 지난 10일 오전9시, 오전11시, 오후1시 등 총3차례에 걸쳐 합동차례를 지낸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스님)도 지난해에 비해 6%인 약50세대가 증가해 총800여 세대가 합동차례에 동참했다.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스님)는 50세대가 증가한 530세대가 설날합동차례를 올렸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추석과 설날마다 합동차례 동참인원이 30~50세대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설날합동차례 참가인원이 일요법회 참가인원보다 200~300명 정도 많을 만큼 명절에 차례를 지내기 위해 사찰을 찾는 인원이 많은 실정이다.

설날 합동차례 동참자를 모집하지 않고 영구위패를 모신 분들을 대상으로 차례를 지내고 있는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스님)는 영구위패를 모신 세대가 해마다 10%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광주 부각사(주지 청학스님)도 지난해 설날보다 11세대 증가한 54세대가 합동차례에 동참했다. 서울 사당동에 위치한 포교당인 정안사 주지 일감스님은 "작은 포교당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불자가 명절 때 사찰을 찾아 합동차례를 지내 놀라웠다"고 말할 만큼 사찰에서 명절 차례를 지내는 불자가 증가했다.

▶관련기사 6면

"명절 문화포교 프로그램 등 모색 필요"

명절 차례를 사찰에서 지내는 세대가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차례음식 마련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덜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가족 사랑과 효를 실천하기 위한 명절이 자칫 부부싸움과 고부갈등, 심지어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다가 유교문화의 희석화, 핵가족화, 전통가족 구조의 해체, 종교갈등 등 다양한 세태가 반영되면서 사찰에서 명절 차례를 지내는 일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물론사찰에서 스님들이 상단불공과 영가시식 등을 통해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정성껏 차례를 지내주는 점도 사찰의 합동차례 증가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제사와 차례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도 형식은 간소화하거나 제사로 인한 가족 간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사찰에서 지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가족문제를 사찰 내에서 해소하기 위한 욕구가 있는 만큼 재의식으로 승화하고 문화포교의 방편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찰의 합동차례 증가 분위기를 불교계가 적극 받아들여 포교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불광사 회주 지홍스님은 "합동차례를지내기 위해 사찰을 찾는 분들이 증가하는 것은 이미 시대적 추세가 됐다"면서 "제사만 모실 것이 아니라 불교의 바른가르침을 알려주는 기회로 삼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불교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결사는 종단미래 싹 틔우는 일" 지난 13일 공양미가 가득쌓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부설기관 신년하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자성과 쇄신 결사는 일시적인 단일사업이 아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것으로, 종단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싹 틔우는 일"이라며 능동적으로 참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신년하례에서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을 비롯한 교역직과 일반직 종무원 300여명은 부처님께 3배로 새해인사를 올리고 덕담을 나눴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선정

불기255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이 선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7일 이현진(경기도 남양주시)씨가 제안한 봉축표어를 당선작으로 발표했다.

봉축위원회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정신으로 정진하여 모두 함께 의지하며 희망의 길, 행복의 길을 향해 걸어가자는 뜻"이라며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보살 정신으로 이웃들을 보듬고 우리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자는 의미를 담아 결정한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6% 늘어난 230명이 총 415건을 응모해 봉축표어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한편 봉축위원회는 오는 5월초 시청앞 점등식을 시작으로, 11일 토요일에는 동국대 운동장에서 어울림마당을, 오후7시부터는 동대문에서 조계사까지 연등행렬을 벌인다. 일요일인 12일에는 조계사 일대에서 전통문화마당과 연등놀이를 펼치며, 17일 부처님오신날에는 전국 사찰에서 법요식을 봉행한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조계종 전문종무원 양성한다

종무행정학교 3월 6~9일
제1기 기본소양과정 운영

조계종이 사찰 재가종무원들의 자질향상 및 업무역량 배양, 예비종무원 양성을 위한 종부행정학교를 처음으로 개설한다. 총무부는 오는 3월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동안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종부행정학교 제1기 기본소양과정을 운영한다.

종부행정학교는 종단의 쇄신과제 중 하나로 회계를 비롯한 사찰운영 전반을 담당할 전문종부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종단은 기본소양교육과 회계를 시작으로 교육기관과 내용을 차츰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 개설된 기본소양과정에서는 '불교! 쉽고 명쾌한 이해' '종부원, 일과 수행' '종단의 이해' '사찰 용어와 일상의 이해' '종부원! 행복합니다!' '사찰문화의 이해' '사찰의 문서작성 실부' '행사, 기획 실부' 교육이 진행된다. 수강인원은 총 40명 내외로, 경력1년 이내의 본말사 재가종부원 및 산하기관 종사자 중 선착순 30명, 종부원에 관심 있는 불자 10명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이메일(smj@buddhism.or.kr)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이수자는 중앙종부기관 종부원 채용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사찰종부원 채용 시 추천혜택이 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총림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구성 요건 등 '이 시대 총림' 개념 모색
22일 종회·쇄신위 첫 공청회 관심집중

조계종 중앙종회와 종단쇄신위원회가 총림법 개정에 앞서, 총림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오는 22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1946년 가야총림이 출범한 이래 수행과 교육을 담당해온 총림의 개념을 새로 정립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종단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공청회에 앞서, 총림법 개정을 두고 주목해야 할 사안을 짚어봤다.

중국 선종에서 총림이 선수행 도량을 의미했던 것과 달리, 현재 한국불교에서 총림은 수행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불교 고유의 수행문화가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한 비구 스님들이 수행과 도제양성을 목적으로 총림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6·25전쟁으로 가야총림은 중단되고, 1967년 해인사에 다시 설치된 해인총림은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을 갖춘 현재 총림의 시원격이다. 2년 뒤 송광사에 조계총림이, 1972년 통도사에 영축총림이 설치됐으며 덕숭총림, 고불총림에 이어 지난해 동화사 쌍계사 범어사까지 조건부 승인이 돼 8개 본사가 총림으로 지정됐다.

가야총림 이후 70년, 강원교육이 변화하고 총림이 확대되면서 총림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교구본사 주지선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방장 스님을 중심으로 화합해 대중공의 전통을 이어오는 총림이 주목을 받으며 총림제도 개선은 급물살을 탔다.

■ 총림법 개정의 핵심

종단쇄신위가 제안한 총림법 개정안과 총림실사위원회(위원장 원학스님)가 8대 총림실사를 통해 의견 수렴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총림법 개정의 핵심은 총림 구성요건의 변화, 방장의 자격 및 권한, 임회 구성 및 역할로 정리할 수 있다.

총림법에 따르면, 총림은 선원, 강원(승가대학, 승가대학원), 율원(율학승가대학원) 및 염불원을 갖춘 종합수행도량이다. 선교율과 염불까지 두루 겸수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현재 총림 가운데 염불원을 운영하는 곳이 없고, 승가대학이나 율원이 미비한 곳도 있다. 지난해 새로 지정된 3곳의 총림도 2년 내 4개 기관을 갖추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형태이다 보니, 시대에 맞춰 총림구성 요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종단의 기본교육기관 정책에 따라 학년별 10명 이상, 총 40명 정원을 갖추지 못한 승가대학은 2014년 2월까지 사실상 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승가대학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환경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승가대학 운영이 어려운 총림의 경우 승가대학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社告

새로운 도약 2013불교박람회

참가업체모집

- 기 간 : 2013년 3월 7일(木) ~ 3월 10일(日) 4일간
- 장 소 :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1번출구)
- 참가대상 : 불교 및 전통문화 산업체, 불교 및 전통문화 예술인, 종단 및 주요사찰, 불교관련업체(단체) 및 기관, 불교문화예술인, 불교 NGO, 사회적기업 등 불교관련 산업체
- 문 의 : ☎ 02-2231-2013(불교박람회사무국)

※ 지세한 내용은 2013불교박람회 홈페이지(www.bexpo.kr)를 참조바랍니다.

- 주 최 : 불교신문사, 불광출판사
- 주 관 : 2013불교박람회 조직위원회, ㈜마인드디자인
- 후 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지안스님과 함께 인도성지순례를 가다

종단 최초 "인도에서 승려연수교육"

부처님 성지에서 출가의 길을 묻다

'2013년 승려연수교육'으로 종단강백이며, 고시위원장인 지안스님과 함께 인도성지순례를 4월12일(금)부터 22일(월)까지 10박11일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인도성지순례는 사르나트(초전법륜지), 보드가야(성도지), 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 쿠시나가르(열반지), 룸비니(탄생지), 스라바스티(금강경설법지) 등 부처님 8대 성지와 상카시아(도리천하강지)와 아그라(타지마할) 및 델리(국립박물관) 등의 현장 체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스님이 종단연수로 8대 성지를 순례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인도성지순례는 시대를 관통하는 부처님의 지혜(智慧)를 배우고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와 갈등에 대한 불교적 해법(解法)을 찾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도 성지순례 방문지〉

■ 일 정 : 불기2557년 4월 12일(金)~ 22일(月) (음 3.3 ~ 3.13) (11일간)
■ 동 참 금 : 200만원
■ 동참마감 : 불기2557년 3월 20일(水)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Tel (02)2011-1810, 1807 Fax (02)732-4926
■ 주관여행사 : ㈜실크로드 여행사 Tel (02)720-9600 Fax (02)734-9937